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기존의 심폐소생술거절(DNR) 규정을 폐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POLST)로 절차를 일원화한다. DNR 요청서와의 병행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4월 1일부터는 AMIS 3.0과 환자 팔찌의 DNR 표기가 'No CPR'로 변경됐다. 사진은 간호사가 No CPR이 표기된 팔찌를 환자에게 채우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69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헬스에디터 - 스트레스는 몸으로 말한다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내과간호2팀 전다혜 대리가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5월 1일(금)  
 발표 제773호(2026년 5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조순영(암병원간호2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소희(진단검사의학팀)  
 황주영(영상의학과)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호진(중앙공급팀)  
 이수연(수술간호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정용찬(심장혈관흉부외과)  
 최민철(산부인과)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미정(외과간호1팀)  
 김은서(중앙내과)  
 김홍선(응급간호팀)  
 박시연(영상의학팀)  
 이예진(외래간호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 서울아산병원

VOL.771 2026. 4. 15



## 함께라서 더 좋은 '비타민D 데이'

완연한 봄이 왔다. 4월 2일 직원들이 '비타민D 데이'를 즐기기 위해 서관 앞 공원에 모였다.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공기를 즐겼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병원은 직원들이 실내 업무공간에서 나와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비타민D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신생아과 정지윤 조교수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잠시 벗어나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선후배 교수님들,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을 수 있어서 좋았다. 팀원들과 활짝 웃으며 충전한 에너지를 환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소아청소년전문의, 신생아과, 어린이병원간호팀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화보 11~13면)

완연한 봄이 왔다. 4월 2일 직원들이 '비타민D 데이'를 즐기기 위해 서관 앞 공원에 모였다.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공기를 즐겼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병원은 직원들이 실내 업무공간에서 나와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비타민D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신생아과 정지윤 조교수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잠시 벗어나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선후배 교수님들,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을 수 있어서 좋았다. 팀원들과 활짝 웃으며 충전한 에너지를 환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소아청소년전문의, 신생아과, 어린이병원간호팀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화보 11~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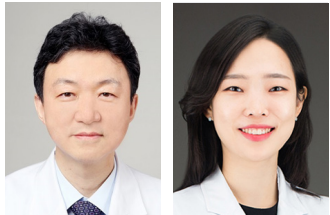
- 02 NEWS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전이성 유방암 치료
- 07 AMC 광장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환자자거보고(PROM)

- 14 헬스에디터 알부민, 약으로 채우는 게 효과적일까?
- 18 AI 현장 리포트 시가 그리는 미래 병원의 청사진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전이성 유방암 치료



김성배 교수



정혜현 조교수

한 달에 세 번 거의 매주 병원에 방문해 맞아야 했던 주사 항암제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경구용 항암제가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기존 주사제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

가 최근 발표됐다.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정혜현 조교수팀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5개국 51개 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HER2 음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 549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경구용 파클리탁셀 투여군 277명은 28일을 주기로 1일, 8일, 15일에 각각 200mg/m<sup>2</sup> 용량을 하루 2회 복용했고, 대조군 272명도 같은 일정으로 80mg/m<sup>2</sup> 용량의 파클리탁셀을 정맥주사로 투여 받았다.

그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경구용 투여군이 10개월로 주사제 투여군의 8.5개월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생존기

간 또한 경구용 투여군이 32.6개월, 주사제 투여군 31.8개월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종양 감소를 나타내는 객관적 반응을 역시 경구용 투여군은 43.3%, 주사제 투여군은 38.8%로 대등한 수준의 항암 효과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경구용 제형의 장점이 확인됐다. 주사제 투여군에서 자주 발생했던 말초신경병증과 과민반응은 경구용 제형에서 현저히 낮았다. 연구팀은 이를 주사제의 용매 성분인 '크레모포어 E1'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구 복용 특성상 소화기계 독성은 더 자주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이었고 치료 관련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우리 병원이 개발해 온 경구용 파클리탁셀이 기존 주사용 파클리탁셀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HER2 음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치료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종양학 연보(피인용지수 65.4)」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 6개월 이상 약물 복용하면 골절 위험 43% 증가



손기영 교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은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골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만 66세 노인 3만 2,771명을 최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6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복용한 그룹의 골절 발생률은 7.8%로 단기 복용 그룹 4.9%보다 골절 위험이 43% 높았다고 밝혔다. 항콜린성 약물 복용자에서는 6개월 미만 복용한 그룹의 골절 발생률은 5.1%였으나 6개월 이상 복용 그룹은 7.8%로 골절 위험이 45% 증가했다. 이는 약물의 종류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장기 복

용 자체만으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에 항콜린성 성분이 많을수록 위험은 더 커졌다. 항콜린성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지속한 경우 골절 위험은 65%까지 높아졌다. 항콜린성 성분은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비염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해 과민성 방광, 위장 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치료제 등 일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다양한 약제에 포함돼 있다. 이 성분들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약물의 종류와 개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약물 장기 복용으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BMC 노인의학」에 최근 게재됐다.

## ‘피지컬 AI’ 심혈관 중재술 로봇 임상 첫 성공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가 3월 27일 심혈관조영실에서 에이비아를 이용해 시술을 하고 있다.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팀이 최근 협심증을 앓던 박 모 씨(남, 56세)에게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 ‘에이비아(AVIAR)’를 이용해 안전하게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복잡한 병변까지 시술 받은 환자는 합병증 없이 하루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국산 1호 관상동맥중재술 로봇인 에이비아는 2019년 우리 병원의 의료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후 기능 개선을 거쳐 2023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승인을 획득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약 1년 만에 임상

에 투입되며 공식 수가 적용도 가능해져 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은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히고 스텐트를 펼쳐 넣는 고난도 시술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직접 시술하며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고 무거운 납 차폐복 착용에 따른 부담도 컸다.

에이비아는 기존 해외 로봇 시스템과 달리 가이드와이어, 벌룬, 스텐트 등 최대 5개 시술 도구를 동시에 제어하는 다채널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해외 로봇 대비 시술 시간을 46% 이상 단축하고 환자 방사선 노출량을 22% 이상 줄였으며, 1mm 단위 정밀 제어와 햅틱 기능을 갖췄다. 또한 AI 기반 시스템이 혈관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료진의 판단을 돕고 시술 정확도를 높였다. 시술자는 콘솔에서 원격으로 조작해 방사선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에이비아는 최재순 의공학연구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엘엔로보틱스를 통해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임상 적용은 수입 로봇 의존도가 높았던 의료 로봇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멀티모달 이미징 시스템을 통한 희귀질환 진단



김준기 부교수

호산구 육아종증 다발혈관염(EGPA)은 초기 증상이 천식이나 비강 알레르기와 유사해 진단이 지연되기 쉬운 질환이다.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 장기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자마다 장기 침범 양상과 질환 활성도가 다양하고 치료에 따라 임상 소견도 달라 기존 단일 임상 지표만으로는 상태를 정

확히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기 침범 평가를 위해 조직 검사 등 침습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환자 부담이 컸다.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팀은 단일 세포의 물리 구조와 화학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광회절 단층 이미징-라만분광 멀티모달 시스템’을 구축해 EGPA 환자 호산구의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알레르기내과에 내원한 EGPA 환자군에서 호산구를 분리한 후, 광회절 단층 이미징으로 형광 표지 없이 세포 내부의 3차원 굴절률 분포를 재구성하고 밀도 등 물리적 지표를 정량화했다. 이어 라만분광으로 동일 세포의 분자 화학 정보를 연속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호산구 내 과립의 고굴절률 영역을 표적으로 질환 특이 신호를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배경 신호를 최소화하고 질환 특이 신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물리·화학적 지표를 통합해 분류 모델을 구축한 결과 EGPA 환자의 호산구를 대조군과 최대 96% 정확도로 구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머티리얼즈 투데이 어드밴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 중환자실 증축 완료



3월 31일 열린 중환자실 증축 완료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환자실이 최근 3년여간의 보수 및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다. 우리 병원은 장기이식과 암·심뇌혈관 수술 등 중증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중환자실 공사를 진행해 왔다. 환자 개인 공간을 확장하고 격리 병실을 증설하는 한편, 의료진의 이동 동선과 근무 환경 등을 재구성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증축으로 내·외과계중환자실 2개, 외과계중환자실 1개를 신설하는 등 60병상을 증설해 총 19개 중환자실, 281개 병상을 갖추게 됐다.

홍석경 중환자실장은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증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일상으로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질 개선 TF 발족



4월 1일 열린 의료질 개선 TF 회의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송인경 부교수가 수술 최적화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 병원 의료질 개선 TF가 4월 1일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의료 정착을 위해 수술과 입원 전 과정을 최적화하고 의료질 개선과 진료 효율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수술 최적화와 입원 최적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술실 운영 효율화, 당일수술센터 활성화,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이어지는 환자 경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기 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경과와 주요 안건을 점검하고 운영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수성 의료질개선위원장(기획조정실장)은 “입원부터 수술, 퇴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해 환자 경험을 향상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간센터 심포지엄



간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3회 간센터 심포지엄이 4월 4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간 질환 치료의 연구 혁신에서 정밀 치료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진 17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간 질환 연구 성과 ▲진행성 간세포암 관리 최신 지견 ▲간 질환 분야 최신 이슈를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일본 오사카대학교 코다마 타카히로 교수와 미국 마운트 시나이 병원 에드워드 김 박사 등 간암 분야 해외 석학들이 연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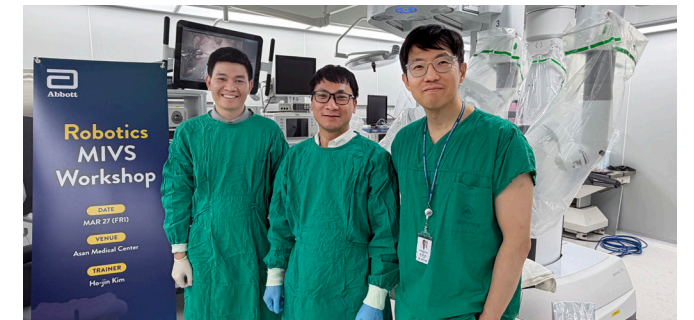
### 리투아니아 의료진 소아 재활 연수 방문



3월 26일 리투아니아 의료진(왼쪽 첫 번째, 두 번째)이 소아중환자실 회진에서 환자 재활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 카우나스 병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일행이 3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재활의학과 고은재 조교수와 재활의학팀 의료진이 유럽아동장애학회(EACD)에서 발표한 우리 병원의 소아·신생아 재활치료 사례를 직접 참관하고 싶다는 리투아니아 의료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환아들의 조기 재활치료와 가족 중심 부모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다학제 콘퍼런스와 환자 회진 등에 참여해 우리 병원 의료진과 소아 재활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 베트남 의료진 로봇 심장수술 연수 방문



3월 27일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부교수(오른쪽 첫 번째)와 베트남 의료진이 로봇 심장수술 연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E병원 응우옌 공 후 병원장 겸 심혈관센터소장 일행이 최근 우리 병원을 찾아 최소 침습 판막 수술과 로봇 심장수술 기법을 배우고 돌아갔다. 방문단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부교수의 지도 하에 최소 침습 판막 수술 과정을 참관하고, 사람 심장과 유사한 돼지 심장을 활용한 다빈치 로봇 핸즈온 교육을 받았다. 이어 판막 성형술과 봉합술을 직접 시행하며 로봇수술의 3차원 입체 시야와 정교한 조작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교수는 수술 기법과 함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 시스템 운영 경험도 공유했다.

###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단위: 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주식회사 한가원	100,000,000	진민규	300,000
강동완	차태현	30,000,000	최영남	300,000
김병규	최문정	100,000,000	한정훈	200,000
김선욱	최영균	100,000,000	황진호	100,000
김성현	최윤정	100,000,000		
김주영	컴퍼니온(주)	100,000,000		
문용원	함신영	5,000,000		
서울인터네셔널 주식회사				
신현정	불우환자 지원			
안경두	김명주	50,000,000		
이수원	김지호	500,000		
이시원	김현숙	300,000		
이예슬	염승섭	1,000,000		
이채윤	이소윤	1,000,000		
이현삼	이주혜	500,000		
임채민	이한나	150,000		
장은정	장은유	1,000,000		
(주)남유에프엔씨	정운상	600,000		
	(주)남유에프엔씨	50,000,000		

####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이신화	10,000,000
----------------	-----	------------

#### [ Zoom in ]

#### 박승일 병원장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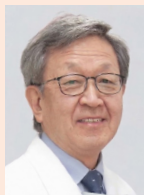
박승일 병원장이 최근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위한 병원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 병원장은 이번 기금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 단체, 개인별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 정

전성훈 교수 JW중외봉사상



사회복지팀 전성훈 교수가 4월 10일 열린 제34회 JW중외상 시상식에서 JW중외봉사상을 받았다. 전 교수는 요셉의원 진료 봉사를 비롯해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50회 이상의 무료 진료를 이어 오며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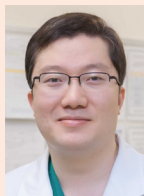
전민호 교수, 차승우 조교수 우수구연상



전민호 교수 차승우 조교수

재활의학과 전민호 교수, 차승우 조교수가 3월 28일 열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20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6회 한·일·대만 뇌신경재활학회에서 '로봇을 활용한 뇌졸중 환자의 인지-운동 통합 재활 치료'를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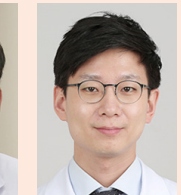
최병문 교수, 오주연 임상전임강사 우수초록상



최병문 교수 오주연임상전임강사

마취통증의학과 최병문 교수, 오주연 임상전임강사가 3월 21일 열린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받았다. 최교수와 오 임상전임강사는 '급성 저산소증에서 내인성 바이오마커의 비교 분석: 통제된 탈포화 연구의 통합 분석'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과제 선정



김자혜 부교수 박은정 조교수 김효재 조교수 이태엽 조교수

우리 병원 의료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기초연구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소아청소년전문과 김자혜 부교수와 대장항문외과 박은정 조교수는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과제에 선정됐다. 김 부교수와 박 조교수는 각각 '인간 성분화 조절 네트워크 및 성분화이상질환 병인 규명'

과 '중수 기원 복막가성점액종의 다중오믹스 기반 발병기전 규명 및 점액 형성 제어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10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신경과 김효재 조교수는 '혈액-뇌척수액 쌍을 이룬 면역지도 기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의 중추침윤 림프구 치료 타겟 및 자가항체 발굴'을 주제로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이태엽 조교수는 '신경발달장애와 모체 면역 활성화: 뇌 오가노이드 기반 다중오믹스 분석과 ADHD에서 모체의 유전적 위험성 통합 분석'을 주제로 3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혈관외과, 비뇨의학과 의료진 학술상 대상



권준교 부교수 서준교 조교수 임동훈 레지던트

혈관외과 권준교 부교수, 비뇨의학과 서준교 조교수, 임동훈 레지던트가 3월 20일 열린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제24회 다학제 콘퍼런스에서 학술상 공모논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레벨 IV 정맥 중앙 혈전을 동반한 신세포암에서 체외순환 없이 시행하는 근치적 신절제술 및 혈전제거술: 유용성과 술기적 제언'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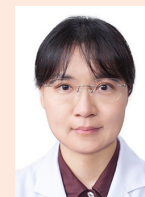
최은지 부교수 최우수구연상



최은지 부교수

혈액내과 최은지 부교수가 3월 26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혈액학회 제6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최 부교수는 '이식 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항흉선글로블린 적용에 따른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조절 T 세포 면역 재구성의 차이 분석'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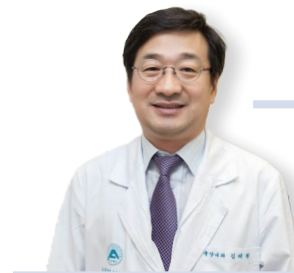
김지연 임상강사, 김태균 과장 학회서 수상



김지연 임상강사 김태균 과장

3월 12일 열린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김지연 임상강사는 '골수이형성증 및 골수이형성/골수증식성 증양에서 CD34 양성 거대핵세포의 임상적 및 유전학적 의의: TP53 변이 및 IPSS-R 위험도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진단검사의학팀 김태균 과장은 'ROTEM Sigma EXTEM 응고시간의 카트리지 제조 단위 간 변이와 임상 의사결정 기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최우수연제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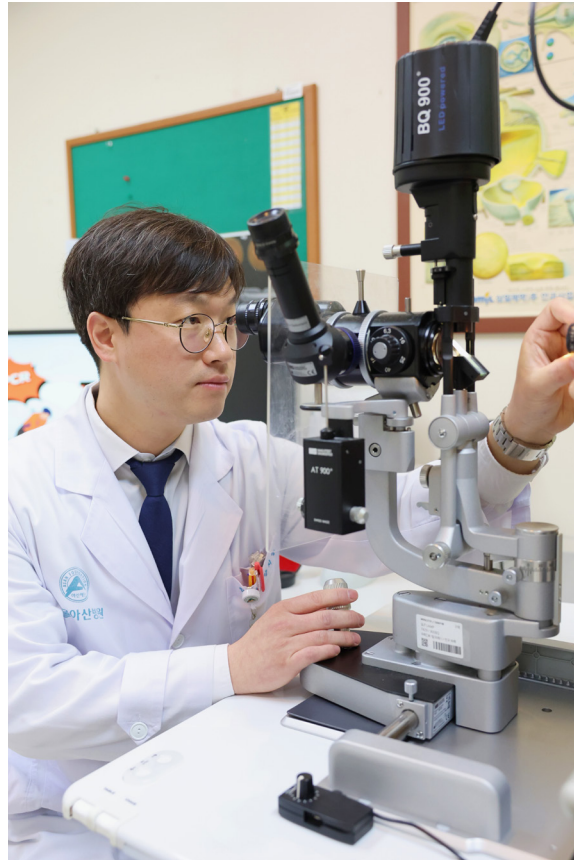
#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환자자가보고(PROM)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자동차에 사이드미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확인하면 충분한 시력이 있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위 차량이 늘면서 사고는 정면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옆과 뒤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 장치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1911년 '인디애나폴리스 500'에 출전한 레이 하룬이 차에 거울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오늘날 운전석 거울은 평면 렌즈로 거리를 정확히 보여주고, 조수석은 볼록 렌즈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비추는 장치가 운전 방식을 바꾸었듯, 의료에서도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지식이나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진의 시야에 담기지 못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치료는 정교해지지만 환자가 겪는 경험은 더 복잡적으로 변한다. 의료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시간의 공백이다. 치료는 병원에서 이뤄지지만 부작용과 상태 변화는 병원 밖에서 나타난다. 항암 치료 후 설사나 통증이 심해지는 순간을 의료진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외래와 다음 방문 사이의 시간은 의료의 관찰이 미치지 못한 채 지나간다. 둘째는 소통의 간극이다. 환자들은 피로나 우울 등 작은 변화를 느끼면서도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치의에게 말을 아끼곤 한다. 의료진이 묻지 않으면 환자는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사이에서 위험은 조용히 자란다. 셋째는 인식의 차이다. 의사는 수술 효과를 영상 변화나 생존 기간 같은 수치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환자가 체감하는 삶은 다를 수 있다. 수술 후 걷기, 말하기, 식사 같은 본래 기능을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절실한 문제일 때가 많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줄이기 위한 도구가 환자자가보고결과 측정도구, 즉 PROM(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이다. PROM은 단순한 만족도 설문이 아니다. 치료 전후 환자가 증상, 기능, 삶의 질 변화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진이 놓치기 쉬운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게 한다. 이는 치료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기술과 함께 진화해 왔다. 센서와 카메라가 주변을 감지하고 위험이 가까워지면 먼저 경고하고 예측하며 대응한다. 옆과 뒤를 보는 장치가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로 확장된 것이다. PROM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환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읽어내고 치료의 흐름을 조정하도록 돕는다. 이는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약물과 수술법이 등장할수록 생존 기간뿐 아니라 삶의 질과 기능 변화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후 치료의 기준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조수석 거울에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볼록 렌즈는 시야를 넓히지만, 거리를 실제보다 멀게 느끼게 한다. 의료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멀리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순간 드러난다. 환자 중심 의료는 많은 정보를 쌓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환자가 경험한 변화를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치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 환자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고자 합니다

### 안과 양지명 부교수

우리 병원은 3월부터 안구내종양 치료를 시작했다.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미숙아 망막 질환 등을 치료하며 혈관생물학을 연구해 온 양지명 부교수가 안종양 치료와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자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낯선 분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 누군가 해야 한다면, 안구내종양 치료의 시작

안종양은 환자가 많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아 안과에선 기피하는 분야다.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국내에선 손에 꼽힐 정도다. 모든 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우리 병원이 안구내종양만은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은 늘 아쉬움을 남겼다. 양 부교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안구내종양 치료법을 배웠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간으로 전이되면 1년 이내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보니 주변의 만류도 있었죠.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때 할머니가 췌장암을 진단받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시며 느낀 무력감은 암 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양에선 종양이 크다면 전이 되기 전 안전하게 안구를 제거하는 치료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서적 거부감이 커서 눈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시력을 보존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된다. 양 부교수는 병원의 지원에 힘입어 근접 방사선 치료를 오랫동안 세팅해 왔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선 양 부교수가 놓친 부분까지 먼저 챙겼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 병원의 추진력을 실감했어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안종양은 재발 우려가 높고 치료 후 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간으로 전이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입자 치료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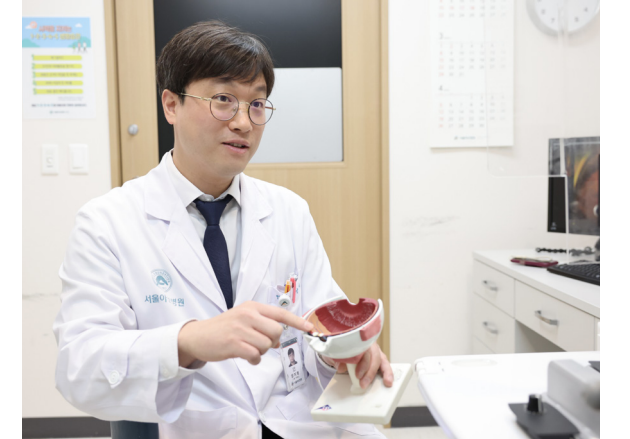
### 연구로 확장된 진료 영역

그는 연구에 대한 흥미를 안고 카이스트 의과대학 과정을 밟았다. 빅데이터 분석과 유전체 분석은 물론 망막 혈관의 발달과 신생 혈관 발생, 병태 생리 등의 연구를 전개했다. 주된 타깃 질환은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이었다. 말기로 진행되면 시력이 회복될 방법이 없어 치료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커지는 안타까움은 연구로 이어졌다. “사소한 데이터도 깊이 고민하며 다양하게 해석하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일단 도전하면 성장하고 언젠가 결과가 따라온다는 조언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고혈압 상황에서 망막 혈관의 투과성 조절 기전을 밝혀 망막 치료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2022년 미국시과학학회에서 ‘화이자 칼 캄라스 중개의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인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신 질환과 망막 혈관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간에 혈류가 많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심장내과 이승환 교수와 심장 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눈을 꼽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망막의 혈류와 혈관 밀도 변화를 통해 심장 질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즉시 검사가 가능하고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앞으로 안구의 암 혈관 위주로 연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안종양을 치료하는 혈관생물학 전공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저만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안종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이율을 현격히 낮출 치료제나 치료 전략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 종착지를 향한 책임감

그가 우리 병원으로 옮기자 먼 거리를 감수하고 따라



온 환자들이 있다. 황반에 출혈이 발생해 거의 시력을 포기한 상태로 왔던 환자도 그중 하나다. 조금만 늦었다면 출혈 부위의 신경이 죽어 시력을 잃을 수 있었지만 빠른 전원과 수술 결정 덕분에 시력 1.0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결과가 좋은 건 환자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제게 감사해 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환자분들이 있어 보람을 느끼며 힘을 냅니다.”

그는 환자들에 곧잘 감정이입하는 성격을 단점으로 꼽는다. 특히 안종양 환자를 만나면 다음 진료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감정이 앞선다.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치료 전략을 설득하며 강하게 이끌어 가야 할 때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면 주춤하게 돼요. 최선의 치료를 위해 고쳐나가려고요.” 그는 우리 병원에 있으면서 사명감이 계속 자라는 것을 실감한다. “제가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겠지만 새로운 가설을 계속 검증하면서 환자께 도움 될 작은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료실이 환자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매일의 책임감과 다짐을 이어간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 유튜브로 시작된 다학제, 유방 치료의 거리감 줄여요

짧은 진료 시간은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를 해결하고자 성형외과 한현호 부교수와 유방외과 유태경 조교수는 ‘우리동네 유방이야기(우유티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진료와 수술, 연구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들의 확장된 다학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실>



(왼쪽부터) 유방외과 유태경 조교수, 성형외과 한현호 부교수

###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계기는

**유태경** 진료 때 유방암을 전부 설명하기란 한계가 있었다. 마침 한 교수가 채널을 함께 만들 유방외과 의료진을 찾으려 의 기투합했다. 동갑내기라 대화가 잘 통했고 이후 내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직하며 더 많은 시너지가 났다. 지난해 각자 해외 연수를 떠난 동안엔 환자들이 기다려 주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웃음).

**한현호** 유방암은 그나마 정보가 많은데 재건 성형은 환자들이 아예 모르고 오는 분야다. 더구나 우리 병원은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 기존의 사진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 채 일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유방 질환 전반을 다뤘다. 혼자라면 지쳤겠지만 함께라서 서로 채근하며 만들고 있다.

### 서로의 시너지를 느낄 때는

**한현호** 일례로 내가 유방 감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유방외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과 수술에 번거로운 과정을 요청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유 교수에게는 유연하게 요청

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공부는 물론 상대 진료과 지식을 많이 배운다. 확장된 다학제라는 생각이 든다. **유태경** 사실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의료진이 환자 치료로 같은 공간에서 만날 일은 없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을 받는 공통된 환자에 관해선 유두를 살릴지, 얼마큼 절제할지, 수술 후 환자 피부가 괜찮은지 등을 자주 소통하고 있다. 환자들이 타과 치료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재건 성형 분야만큼은 보다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

###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한현호**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자비 운영의 부담이 따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장점도 있다. 다른 의료진을 모시기나 유방암 환자에게 무료 미용 이벤트를 펼친 적도 있는데 시간과 품이 들면 본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지금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유태경** 환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끊어드리기 어렵다. 오해를 빚거나 의도와 다르게 와전될 수 있는 내용은 조심하고 있어서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지만 우리 병원의 무게에 걸맞은 콘텐츠를 다루려고 한다.

### 진료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유태경**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인 환자들은 진료가 훨씬 수월하다. 우리를 이미 친숙하게 여기고 신뢰를 느낄수록 치료 순응도도 높아졌다.

**한현호** 최근에 미국 새크라멘토에서 유튜브를 보고 진료받으러 온 환자가 있었다. 영상의 위력을 실감했다. 또 상담 간호사가 우리 영상으로 설명할 때면 환자와 의료진을 잇는 또 하나의 창구이자, 병원과 채널이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활력 충전, 웃음 가득 비타민D 데이



수술간호팀 최재진 과장,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홍래 조교수, 수술간호팀 김현아·심민선 대리, 김화수 주임(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이 4월 2일 서관 앞 공원에서 열린 비타민D 데이 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타민이 팡팡 샘솟는 하루입니다!”  
비타민D 데이 행사가 4월 2일 서관 앞 공원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흥겨운 음악 소리와 더불어 직원들의 이야기 소리와 낭랑한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곳곳에 마련된 간식 부스에는 팝콘, 솜사탕, 아이스크림 등 달콤한 먹거리를 즐기려는 직원들이 줄을 이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형 뽑기 부스에서는 집게가 인형을 들어올릴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크게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포토존과 즉석사진 부스에서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맛있는 간식, 푸짐한 게임 선물, 동료와 찍은 즉석사진, 그리고 직원 동호회 ‘꽃사모’와 ‘캘리누리’가 준비한 다육이와 캘리그래피까지. 직원들은 선물과 상쾌한 봄햇살을 한가득 안고 돌아갔다. 활력과 웃음이 넘쳐던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에 담았다. [다음 장에 계속](#)

시작 시간에 맞춰 뛰어나왔는데 이미 북적북적~ 팝콘과 솜사탕을 들고 봄기운을 가득 충전했어요. 어린이병원간호팀 김자경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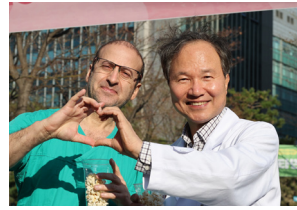


직원들의 행복충만하는 모습에 저까지 행복해졌어요. 우리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쌓아갑니다. 소화기내과 권현숙 주임



내년에도 이 멤버 그대로 비타민D 데이 즐기러 나오자! 약제팀 이지민 주임

봄의 시작은 역시 비타민D 데이죠! 하루로는 아쉬우니 내년에는 이틀로 늘려주세요~ 소화기내시경팀 임승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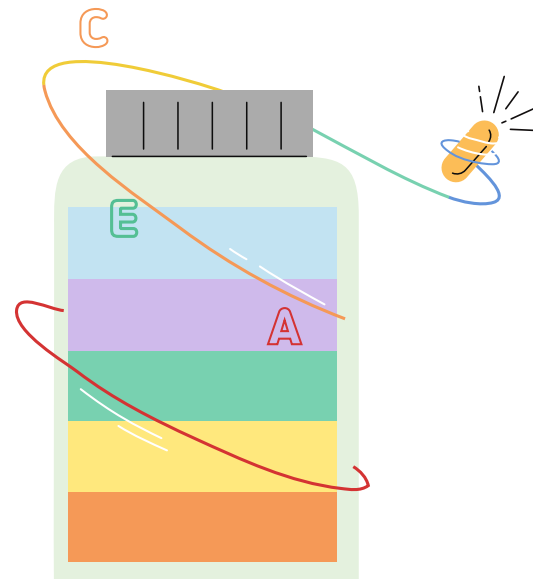
더 많은 사진은 아산넷 → 서비스링크 →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부민, 약으로 채우는 게 효과적일까? 먹는 알부민 광고의 진실



소화기내과 정성원 조교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데 시중에 파는 먹는 알부민을 복용하면 수치가 올라가나요?”라는 질문이다. 간질환 환자에게 알부민은 단순한 영양 수치가 아니다. 간의 합성 기능과 복수, 염증, 감염, 신기능, 체액 상태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알부민의 실체와 오해에 대해 정리했다.

### 알부민은 어떤 단백질일까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로, 혈관 안의 수분을 잡아 두고 호르몬, 약물, 비타민 등 여러 물질을 운반한다. 알부민이 낮으면 부종이 생기는 등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알부민혈증이 곧 단백질을 덜 먹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간의 합성 기능 저하, 신장을 통한 소실, 염증에 따른 생성 저하, 체액 증가에 따른 희석 등과 관련이 있다. 즉 간질환 환자의 알부민 수치는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 결과로, 단순히 보충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 왜 먹는 알부민 광고가 설득력 있게 들릴까

알부민은 실제 혈액검사 항목이고 많은 환자들이 이미 중요한 수치로 알고 있다. 제품명에 알부민이 들어가면 마치 혈액 속 알부민을 직접 보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이 알부민이라고 해서 혈청 알부민을 올리는 제품은 아니다.

### 먹는 알부민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먹는 알부민 제품 다수는 난백알부민을 주원료로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공식 알부민 기능성 원료는 난백알부민이 아니라 'PMO 참밀알부민'이다. 그 기능도 혈중 알부민 증가가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 억제로 기전 역시 혈청 알부민 보충과는 무관하다. 알파 아밀레이스를 억제해 전분 분해를 늦추고 당의 소화·흡수를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난백알부민은 식약처 원료 데이터베이스상으로도 본다면 일반 식품원료에 해당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방식 자체에 있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먹는 알부민이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가 혈청 알부민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혈청 알부민 수치는 간의 합성 기능, 염증, 감염, 신장이나 장으로의 단백질 소실, 체액 상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들에서도 알부민은 영양 상태보다 염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으며, 영양 지원이 단기간의 혈청 알부민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알부민혈증을 난백알부민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과장에 가깝다.

그렇다고 영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간학회는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에서 하루 단백질 1.2~1.5g/kg 섭취를 권고한다. 특정 제품을 섭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을 전체적으로 맞추라는 의미다.

### 간질환에서 근거가 있는 건 정주 알부민이다

정주 알부민은 일부 간질환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가 있다. 3l가 넘는 대량 복수 천자를 할 때는 배액하는 복수 1l당 6~8g의 알부민 투여가 권고된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도 항생제에 알부민을 더했을 때 신기능 악화 및 입원 중 사망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 간신증후군에서는 알부민이 혈관수축제와 함께 쓰는 치료의 일부다. 간질환에서 알부민이 의미 있는 상황은 단순 보충이 아니라 합병증의 기전을 겨냥한 치료다.

### 그렇다고 모든 저알부민혈증에 알부민이 답은 아니다

입원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들의 알부민 수치 개선을 목표로 알부민을 반복 투여한 연구에서는 감염, 신기능 악화, 사망을 줄이지 못했고 중증 이상반응은 늘었다. 미국소화기학회에서도 합병증이 없는 단순 복수에서는 알부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현재 장기 정주 알부민 역시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모든 간경변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치료라기보다는 치료에 효과적인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수치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원인이다

간질환에서 중요한 질문은 '알부민을 무엇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알부민 수치가 왜 낮아졌을까?'다. 복수가 생겼는지, 감염이 동반됐는지, 신기능이 나빠졌는지, 실제 영양 섭취가 부족한지 등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왜 낮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는 것이다.

# “고난도 로봇 신장이식 노하우 배워서 더 많은 베트남 환자 살리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온 보레득쫁 임상강사



저는 베트남 제이어린이병원에서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은 그 아이 앞에 놓인 평생의 시간을 구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소아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선천성 질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장·비뇨기 기형 분야의 치료 전문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교수님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도 첨단 치료인 로봇 신장이식 분야를 선도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 뛰어난 로봇수술 실력과 팀워크에 감탄했습니다.

신성 교수님이 집도하는 로봇 신장이식 수술을 모두 참관했습니다. 이식 결과는 물론 환자의 회복과 미용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큰 로봇수술의 효과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은 다낭성 신종 환자의 로봇 신장 절제 및 신장이식 수술입니다. 비대한 신장은 유착이 심해 정교한 바리가 필요한 만큼 고난도 수술로 꼽힙니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에서도 의료진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고, 환자도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수술실 동료들과 로봇 신장이식 200례 달성을 기념하며! (뒷줄 왼쪽 세 번째가 보레득쫁 임상강사)

매일 아침 콘퍼런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요.

수술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제가 애정하는 회의실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의료진이 모여 수술 일정을 공유하고 까다로운 케이스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치는 곳이지요.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어 소통이 쉽지 않은데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 처음부터 신·췌장이식외과 구성원인 것처럼 친근하게 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아침 콘퍼런스 시작 전, 고요한 회의실에서 한 컷

## 삼겹살을 구워 먹는 문화가 정말 재미있어요!

타지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음식인데, 한국 음식은 걱정과 달리 제 입맛에 아주 잘 맞아요. 짜장면, 치킨, 떡볶이, 최고는 역시 삼겹살입니다(웃음)! 베트남에서는 명절이나 연말 파티처럼 특별한 날에만 직접 바비큐를 하거든요. 삼겹살을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경험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밖에도 비발디파크에서 난생처음 함박눈 경험하기, 한복 입고 경복궁 거닐기, 생활용품 매장에서 주기적으로 쇼핑하기 등 병원 밖에서도 아주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삼겹살 한 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두 번째 판 굽기 준비!

##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연수를 마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배운 노하우와 술기를 신장질환 환자 치료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로봇수술 뿐만 아니라 동종이식편을 활용한 신정맥 연장술도 현지에서 도전하며 수술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의술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신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한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성 교수님과 함께 👍  
# 감사합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HIMSS 2026 참가가: 시가 그리는 미래 병원의 청사진

이원구 IT전략팀장 · 간호교육행정팀 여건영 대리



3월 9일부터 4일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 콘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1,2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주를 이뤘던 기술 과시형 전시와는 달리, 시가 의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입증하며 '실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는 AI를 실제 진료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브리검의 제인 모란 최고정보·디지털책임자(CIDO)는 "의료 AI는 이제 파일럿 단계를 지나 초기 확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AI 도입 성공의 열쇠는 기술 자체보다 인력 교육과 고품질 데이터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는 병원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 지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메이요 클리닉**은 130개 기업과 글로벌 병원들이 협력해 5,4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보유하며 협력하는 '피어 투 피어(P2P)' 구조가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과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표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모든 시스템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과 규제가 엄격한 국내 환경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습니다.

한편 **애플**은 생체신호를 감지해 질병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 진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예방의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 전부터 환자의 일상을 관리하며 병원과 환자를 잇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병원이 추진 중인 환자자거보고 측정도구(PROM) 활성화나 중증 노년 환자 통합진료시스템 '위드원(WithONE)'과 같이, 병원과 환자의 일상이 더욱 밀접하게 이어지는 미래 의료 환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부스에서는 AI 에이전트들의 도약이 돋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환자와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진료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연구자료 정리와 수익 분석, 보험 환급까지 처리해 주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북미권 최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업체인 **에픽시스템즈**는 의료진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팩토리' 플랫폼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WS와 구글**은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준수하는 대규모 의료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하며 강력한 보안 통제를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의료 시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의료진의 '동료'로 자리 잡았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의료 시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효율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환자에게는 더 안전한 치료를, 의료진에게는 더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 도입과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는 의료 AI의 발전 흐름과 트렌드, 우리 병원만의 의료 AI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심장병원간호팀 김소진 사원입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간호사를 꿈꿔요. 중환자실 특성상 환자에게 병원 침대는 집과 같아요. 환자의 의식주를 도우며 보호자이자 친구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서울아산병원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자동차 하면 현대가 떠오르듯 병원 하면 서울아산병원을 떠올리곤 했어요. 가장 신뢰받는 곳에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요. 병원이 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면접 때 병원 안을 헤매면서 바로 체감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병원 지리가 헛갈려요(웃음). '아산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상권이 없는데도 환자와 보호자로 병원 인근이 북적이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병원의 규모와 사회적 역할을 실감합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심장내과중환자실에서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를 간호하고 있어요. 시술 후 집중 관찰이 필요한 단기 환자부터 에크모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장기 환자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심정지나 혈압 감소 등으로 레드 알람이 울리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응급 대응을 펼쳤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환자 곁으로 돌아가 있죠. 겁 나는 순간이 많지만 든든한 동료, 선배들이 있어 늘 감사해요.

가장 좋아하는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은 꼽는다면요? 환자의 활력징후를 책임지고 식사와 양치, 대소변, 수면 등을 돕는데 그중에 저는 구강 간호를 가장 좋아해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들의 입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감염을 예방하고 촉촉한 립밤도 듬뿍 발라드리면 저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스스로 양치할 수 없으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보호자에게 어떤 위로나 응원을 보내야하는지, 예상 경과를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선배나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네요. CNS 강주원 선생님이 제 담당 환자의 상태나 복용 약물 등을 자주 질문하세요. 답변이 막혔던 질문을 공부해 가면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덕분에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고 더 깊이 있는 간호를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선생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환자에 대해 상의하는 날이 오겠죠? 또 걸음마도 못 떼던 아기 간호사 시절부터 프리젠테이션 복초롱 선생님 옆에 딱 붙어 많이 보고 배웠어요. 제가 선생님의 말투까지 비슷해진 걸 느낄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병원 밖 '김소진'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직은 틈만 나면 부모님이 계시는 울산으로 가요. 기차역에 마중 나온 아빠와 집에 가서 따뜻한 엄마 밥을 먹는 게 큰 힘이 돼요. 병원에 적응하고 있으니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병원과 일상의 나를 모두 다채롭게 채워 가려고 합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왜 하루는 남지 않을까



중환자간호팀 김다혜 과장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갈지 결정할 때, 이제는 내 취향보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됐다. 맛집 앱의 별점으로 메뉴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이 걸어갈 길을 정해준다. 스스로 고민하기도 전에 검증을 거친 실패 확률 낮은 답안지가 이미 손에 쥐어진 것이다. 덕분에 하루는 매끄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일과가 끝나면 많은 일을 처리했다는 감각만 남을 뿐, 그 시간이 내 안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공허함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매끄러운 중재에 삶을 맡기며 일상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방관자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기술로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매끄럽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몸이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도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경험은 세상을 대면할 때 생기는 마찰을 통해 우리의 시간 속에 서만 형성된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비효율로 간주하고 기술에 외주를 맡기는 순간, 우리만의 고유한 경험은 멸종한다. 그리고 타인의 몸과 마주하며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

이 통찰은 효율과 속도가 중시되는 병원 현장에서 더욱 서늘하게 다가온다. 병원은 매 순간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이다. 정밀한 수치와 정보를 통해 우리는 빠르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일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와 부대끼며 느끼는 감정이나 눈빛 같은 '인간적 마찰'은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기 쉽다. 그렇다고 경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둘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면 시간, 인내, 지루함, 백일몽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말처럼 기술의 중재

를 잠시 거두고 일상을 되짚을 때 비로소 경험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시스템 밖에서 만들어지는 동료와의 대화, 환자와의 짧은 교감이 결국 우리 병원의 문화를 깊이 있게 만드는 진짜 경험이다.

이 책을 읽고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하루를 마칠 때 그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작은 변화를 가졌다. 환자와 나는 짧은 대화나 동료와 주고받은 웃음 한 번이면 충분하다. 타인의 평가나 시스템의 기록이 아닌 내 언어로 남긴 문장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경험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책은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리함 속에 갇혀 너무 많은 하루를 무감각하게 통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한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이 책은 그 이유를 차분히 짚어준다. 경험은 새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룰 것인지의 문제이다. 데이터 너머 자신만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오늘의 일상을 다시 경험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금, 일상 속 심포가 되다



외과간호1팀 김지혜 과장



## 해금을 배우게 된 계기는

평소 우리 가락이 지닌 단아한 멋에 이끌려 관심을 갖고 있던 중, 다니고 있는 사찰의 국악단 창단 멤버로 참여하며 해금을 처음 접했습니다. 단원들과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경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해금의 깊은 음색에 매료되어 꾸준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 해금의 매력은

해금은 두 줄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악기이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연주자의 손끝 감각과 호흡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에, 때로는 악기가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애절함과 경쾌함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유연함이 해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억에 남는 연주나 즐겨 연주하는 곡은

국악단 소속으로 처음 정기 연주회 무대에 올랐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많은 관객 앞에서 긴장도 됐지만 한 음 한 음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주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연주를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산조도 훌륭하지만 '김광석 - 서른 즈음에', '유재하 - 사랑하기 때문에' 등 대중적인 곡을 해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해금의 선율로 재해석될 때 새로운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표현의 폭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 해금이 일상에 주는 변화는

병원에서의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해금 활을 잡는 시간은 제게 '심포'와 같습니다. 활을 갖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환자분들을 더 따뜻하게 마주할 에너지가 새롭게 채워집니다. 해금은 시간을 들여 마음과 호흡을 맞춰가는 악기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믿고 천천히, 즐겁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괜찮아! 잘 될 거야

조직검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식은땀과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지러워 한 발짝도 떼기 어려웠고 '내대로 쓰러지겠구나' 싶던 순간, 지나가던 분의 도움으로 간호사님을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134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곧바로 달려와 제 몸을 지탱해 주며 활체어로 옮겼고 병실에서 혈압 측정과 채혈, 수액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 내내 "괜찮아요, 숨 편히 쉬세요, 혈압도 괜찮아요"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덕분에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134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다혜 선생님. 늘 밝은 모습으로 간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위원의 말을 자주 전하려 합니다.

"여보, 나 괜찮아." "딸아, 엄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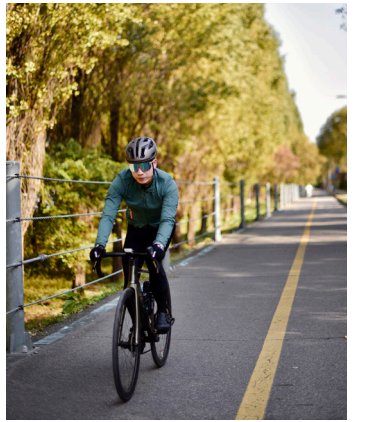
“환자분의 칭찬카드를 통해 전문적인 처치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호의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칭찬은 환자 안전을 위해 함께 힘써 온 134병동 간호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몸의 불편함 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내과간호2팀 전다혜 대리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흘렀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최근 가입한 자전거 모임에서 라이딩 중에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쳐져 버린 것이다. 심지어 거기서 난 가장 젊었다. 상완에 차고 있는 심박계가 울린다. 분당 심박수는 180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자전거를 10년 이상 타온 터라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이 상황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내 자전거가 구형 모델이어서 그럴 거야'라는 자기 위안과 함께 중고거래 앱을 뒤져보고는 새것 같은 중고를 구매했다. 5만원 네고까지 성공했다. 물론 와이프에게 가격을 많이 낮춰서 이야기했다. 이미 머릿속에선 선두에 서서 모임의 무리를 이끌고 있다. 다음 모임이 잡히고 다시 열심히 밟아본다. 몸이 아주 가볍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흐른다'. 당황스러웠다. 모임이 끝난 후 카톡에 올라온 단체사진을 보니 나의 허벅지가 가장 비루했다. 이제는 나의 실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실력 향상을 위해선 자전거 안장 위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하지만, 주말엔 육아로 불가능하고 평일엔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밖엔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보자.' 그렇게 자전거 출퇴근이 시작됐다. 하남에서 병원까지 거리는 약 10km.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됐다. 우리 병원은 자출러들에게 천국인 직장이었다. 직원 전용 자전거 주차장, 샤워실 완비, 근무복 지급, 자전거도로 인접 등... 거기다 시간, 교통비, 건강은 저절로 따라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온몸으로 느끼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광경은 매번 감탄스러웠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됐다. 여전히 나는 가끔 가는 모임에서 최대 심박수를 찍으며 '흐르는' 날이 많지만,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자전거 출근을 하며 스트레스를 흘려 보낸다.



##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 수술간호팀 고희주 차장

'문화·생활정보' 코너에서 서울과 지역 아산병원의 검진 프로그램과 혜택을 꼼꼼하게 소개해 유익했어요. 다양한 직원 혜택에 아산병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 암병원간호2팀 김나진 사원

'감사우체통 - 가정간호가 지켜준 일상'을 잘 읽었습니다. 투병 중인 환자분과 정성을 다해 간병 중인 보호자분,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사 선생님 모두 힘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핵의학팀 신주영 사원

'나의 취미생활' 코너가 기억에 남아요. 저도 배고 파충류를 좋아하는데 키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엽고 저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직원분들의 다양한 취미를 엿볼 수 있어 늘 즐겁게 보고 있어요.

### 어린이병원간호팀 박연정 주임

'사람&이야기' 속 김용주 선생님의 해외연수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연수 후 바쁘실 텐데 아낌없이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료정보관리팀 김사라 대리

'헬스에디터 - 스트레스는 몸으로 말한다'코너가 마음에 남습니다. 실 틈 없는 일상에 위로 한 스푼이 건네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의 침표를 찾기 위해 가족들과 산책을 나가보려 합니다.